

평화동 신성공원 일대 침수 피해 예방 순항

전주시, ‘학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토목공사 본격 착수

전주시 평화동 신성공원 일대가 침수 피해로부터 안전한 마을로 탈바꿈된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로부터 평화동 신성공원 일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학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20년 8월 8일 내린 시간당 최대 35.1mm의 집중호우로 인해 2.0ha의 면적과 주택 7동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시는 반복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신청해 이듬해 신규 사업지구에 선정됐다.

시는 최근 본격적인 공사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로, 오는 2028년 4월까지 총 27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성공원 내 우수저류조 설치 △학소제 우수저류지 정비 △장천제 방류 기능 개선 등을 추진한다.

특히 시는 1단계 사업으로 신성공원



전주시는 평화동 신성공원 일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학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내 녹지공간 지하에 약 8200톤 규모의 우수를 담아둘 수 있는 저류조를 설치해 도심지 침수 위험 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후 시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사업을 통해 약 6960톤의 우수를 기존 학소제(소류지)에 추가적으로 담

아를 수 있도록 학소제를 저류지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학소제 주변에 설치하는 관리용 도로는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공

원 내 수목 이식과 운동기구 이설 등 공원 상부의 지장물을 철거하고, 공사 관계자의 출입 통제를 위한 안전헬스를 설치하는 등 지하저류조 설치를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공사 현장 주변에 꽃밭정이나 인북지관과 평화도서관, 신성초등학교, 아파트 단지들이 위치한 만큼, 공사 추진 과정에서 소음 및 분진 발생, 공사 차량 왕래 등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건설장비 소음 및 분진 발생 최소화 △건설장비 신호수 등 안전요원 배치 △주변 시설에 안내문 배포 △현수막 게첨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설명 등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현재 학소제 사업부지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중으로, 시는 2단계 사업 착공 전까지 손실보상 절차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주시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학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통해 침수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한 전주를 만들고,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청년 소통 네트워크 데이 운영

전주시, 8일 다양한 소통·교류 프로그램 진행

전주시는 8일 청년이음전주(완산구 현무1길 31-5)에서 청년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청년 소통 네트워크 데이’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청년이음전주와 지역 청년단체인 볼드·블록 등 청년 문화인 총 30명이 직접 기획과 운영에 참여해 청년이 선호하는 콘텐츠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청년이음전주 야외 특설무대에서 청년 등 시민 100여 명의 참여자가 장기 자랑을 선보이는 ‘청년 위너스 장구 콘서트’와 더불어 ‘시공간을 넘는 청년 코스프레 콘서트’가 진행된다. 또, 청년 예술인들의 공연 및 토크콘서트가 펼쳐진다.

또한 이날 현장에서는 △AI 드로잉, 공예 등 다양한 문화체험 △푸드·뷰티 팝업스토어 △예술작품 전시 및 토크콘서트 △놀이와 체험을 통해 소통하는 청년 놀이터 이벤트 등 청년과 기관, 청년과 청년이 서로 소통·교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참여 주도형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주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장은 “청년 소통 네트워크 데이는 지난 청년의날 행사와 함께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화합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이 지역사회 속에서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류와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마이스 관광객 유치·관광 홍보 집중

서울 코엑스에서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참가 전북자치도와 공동홍보관 운영

전주시가 마이스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대표 마이스 박람회에서 집중 홍보전을 펼쳤다.

시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2025’에 참가해 전북특별자치도와 공동홍보관을 운영했다.

(사)한국MICE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서울특별시와 한국관광공사 등이 후원한 이번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에

는 국내 협회·학회, 마이스협회 회원사, 각종 관광청 및 대사관, 국내 마이스 관련 기관 등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마이스 비즈니스 및 기업 홍보와 네트워크 구축 및 최신 정보 공유 등이 이뤄졌다.

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마이스 박람회 중 하나인 이번 박람회에서 전주시 마이스 인프라와 전주 관광자원을 안내하고, 향후 건립 예정인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및 전주MICE복합단지

를 집중 홍보했다.

또 전주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비롯한 관광자원 홍보 등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한 마케팅 및 전주 관광 홍보 활동에 집중했다.

특히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국내·외에서 마이스 행사를 직접 주최하는 협회와 학회 등 주최자와의 1:1 상담을 진행하는 등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해 공을 들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엑스포 참가자



들의 홍보부스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전주 야간관광 인스타 팔로워 이벤트 등 신선하고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전주 MICE 인프라를 알리고 전주야간관광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 실외 인라인경기장, 다목적 공간 조성 추진

전북 유일의 1층 공인 인라인경기장이자 국제 대회 유치가 가능한 시설인 전주 실외 인라인경기장이 날씨와 관계없이 1년 내내 훈련할 수 있는 전천후 인라인 전지훈련장이자 다목적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된다.

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8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8억 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은 김운덕 국토교통부 장관(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주시)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9년까지 국

비 등 총 60억 원을 투입해 송전동 실외 인라인경기장을 대상으로 전천후 인라인 전지훈련 및 다목적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실외 인라인경기장을 전면 개선하고, 기초보강 공사와 지붕 설치, 관람석 보수 등 주요 기반 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선수들이 기상 여건과 관계없이 훈련할 수 있는 전천후 전지훈련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동시에, 각종 인라인 대회는 물론 대규모 전시·공연·축제 등 다양한 행사 개최가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시민 제보 접수

전주시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장의 불편·부당 사례 등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제보 대상은 △위법·부당 행정행위 △시정 개선 및 건의 사항 △예산 낭비 사례 등이다. 제보 접수 기간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28일까지다.

제보 내용은 의회의 검토를 거쳐 감사 대상에 반영하거나 향후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보 방법은 전주시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jonju.go.kr/)나 우편·방문, 상임위원회 전화(운영위원회 230-3526)를 통해 가능하다. 제보자의 개인정보는 비밀을 원칙으로 한다.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행정감사는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꾸려진다.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이남숙, 부위원장 장병익 의원을 중심으로 행정위원회 김동현(삼천1·2·3, 효자1동), 김성규(효자2·3·4동), 최명권(송천1·3동)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윤혜정(우야1·2, 호성동), 이국(덕진, 팔복, 송천2동) 의원, 문화경제

위원회 송영진(조촌, 여의, 혁신동), 이보순(비례대표), 이성국(효자5동)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세혁(비례대표), 김현덕(삼천1·2·3, 효자1동), 최서연(진북, 인후1·2, 금암동) 의원이 활동한다.

이남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시민의 뜻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현장의 목소리가 살아 있는 행정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금융기관 대여금고압류·봉인

전주시는 최근 고액·상습 체납자가 이용 중인 세종·전주·남원 등지의 금융기관 대여금고를 압류·봉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은닉자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금융기관 대여금고를 이용 중인 총

14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압류·봉인된 대여금고에 대해서는 14일간의 납부 독촉 기간을 부여했으며,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고를 개봉해 내부 물품을 확인한 후 물품별로 체납처분(압류·공매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축!전주매일 창간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애로 시원하게 해결!

비즈니스 지원단

분야별 전문가 무료 상담 지원

방문/전화/인터넷 상담 가능 (063-210-6436~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민원실

상담분야는 매일 상이하므로 전화·방문 전 홈페이지 www.smes.go.kr/bizlink에서 근무일정 확인

창업 | 경영전략 | 마케팅 | 법무 | 금융 | 인사·노무 | 세무·회계 | 수출입 | 기술 | 특허 | 정보화 | 생산관리